

# 히스기야의 담대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는 언제나 ‘강자의 압박’과 ‘정의의 원칙’ 사이의 싸움으로 기록된다. 고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다가왔을 때, 히스기야는 군사력으로 맞설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지 않았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붙들고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열왕기하 19:34) 그 믿음의 결단이 유다를 지켜냈고, 그를 신뢰받는 왕으로 세웠다.

오늘의 대한민국 역시 비슷한 시험대에 서 있다. 세계 경제의 파고 속에서 강대국의 이해가 우리 국익을 압박하고, 정의보다 힘의 논리가 앞세워지는 현실이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은 그 치열한 외교의 현장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 a’라는 천문학적 투자 압박을 가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누구라도 주저했을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국익에 저해되는 합의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다. 협상 기간이 길어져도 좋으니 원칙을 지키라는 지침이었다.

그 결과는 극적이었다. 막판까지 결렬 위기였던 협상은 미국 측의 입장 변화로 타결됐다. 우리 정부는 투자 총액을 기존 기준 선인 3500억 달러로 유지하면서, 연간 투자 상한선과 손실 보전 구조 등 실질적 안전장치를 지켜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우리 협상팀을 “강경하고 뛰어난 협상가”라 인정했다. 결과보다 더 값진 것은, ‘굴복하지 않은 협상’ 그 자체였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고, 원칙에 뿌리내린 정치 지도자의 결단은 국민의 신뢰를 낳는다. 외교는 종종 타협의 예술이라 하지만, 정의의 근간이 무너지면 타협은 굴종이 되고, 평화는 종속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협상 태도는 바로 이 시대의 히스기야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압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국민의 자존’을 지켰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힘센 나라의 눈치를 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한 요구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익을 넘어 정의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리더 말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켰고, 그 결과로 나라가 지켜졌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믿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도 진리를 택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얻는 지도자 말이다.

2025년 11월 2일  
통권 13권 44호  
창조절 9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9

# 주일에배순서

## 찬양

인도 영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 사회 김경은 집사

신앙고백 Creed	벙커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함께
기도 Prayer		양영훈 집사
독서 Bible reading	로마서 5:6~10	사회자
설교 Sermon	좁 지면서 살면 안 되나요?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김 목사

## ■ 벙커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므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 성경 로마서 5:6~10

5:6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5:7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5: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 ■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 나의 영 - 원 하 신 기 업 생 명 보 - 다 귀 하 다 나의  
2. 세 상 부 - 귀 안 일 함 과 모 든 명 - 예 버 리 고 받 은 한  
3. 어 둔 골 - 짝 지 나 가 며 험 한 바 - 다 건 너 서 천 국

6 갈 - 길 다 가 도 록 나 와 동 - 행 하 소 서 주 께  
길 - 을 가 는 동 안 나 와 동 - 행 하 소 서  
문 - 에 이 르 도 록 나 와 동 - 행 하 소 서

10 로 가 까 이 주 께 로 가 오 니 나의  
14 갈 - 길 다 가 도 록 나 와 동 - 행 하 소 서 아 멘

## ■ 설교 요약

본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상대에게 지면서 사는 인생이 큰 평화를 이룬다”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는 것’이자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곧 평화를 만드는 능력이라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8)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으로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지는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이겨야 산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화해

를 이루시며 “저야 산다”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평화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저서 얻은 평화’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는 손해 보고, 양보하며, 억울하게 저주는 삶을 선택하지만, 그 안에서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는 삶,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어딜 목사에게  
특검 나가라고 하느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어딜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고 반발했다는 보도는, 우리 사회가 오래 물어두었던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게 합니다.

성직자는 과연 법과 윤리의 심판대 위에서 ‘예외적 존재’일 수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니오’입니다.

**법 앞의 평등, 예외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이름 아래에서는 누구도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목사든, 승려든, 대통령이든 법 앞에서의 책임은 동일합니다.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그것이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 목사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소환된 것은 그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단서를 쥐고 있다고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목사니까”라는 이유로 법의 부름을 외면하는 순간, 종교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 순종과 공의의 명령**

기독교의 윤리는 ‘순종’과 ‘공의’라는 두 기둥 위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복종이 아니라,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윤리적 요청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법과 질서, 그리고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회의 법적 절차를 외면한다면, 이는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향한 사회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성직자, 특권이 아닌 책임의 자리**

성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목사가 법적 의혹이나 증언 요청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자세는 세 가지입니다.

진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회피보다 협력으로,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으로 사회에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해야 합니다.

자발적 자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를 내려놓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성직자의 이름은 결코 법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해야 함을 뜻합니다.

‘목사니까 괜찮다’는 말 대신 ‘목사니까 책임진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시금 공의와 신뢰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 3주기 현장 수요예배 설교문  
“더 추악한 진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시간 전부터 절규했던 112 신고는 왜 묵살되었습니까?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왜 단 한순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의 보위가 우선시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이한 책임 회피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국가적 참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망설이던 권력의 도덕적 바닥, 그리고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술적 연계' 의혹까지—이 모든 불의와 불신은 유가족의 고통을 2차, 3차의 고통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윤석열의 '손바닥 왕(왕) 자' 논란, 특정 무속인(간진법사)의 선대위 개입 의혹, 그리고 역술인(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은 공적 영역과 주술적 영역이 위험하게 섞여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강원도 동해 사무실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부적 액자를 달았고 일본 주술적 무속에 경도된 인물로 알려진 '윤석열 40년 지기' 황희영 씨의 아들은 윤석열 부부 직근거리에서 보좌 해온 행정관입니다. 그 전에 양정철 운전기사였지요.

윤석열이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민다고 자랑한 새 집무실 터가 원래 무덤산이었고, 윤석열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부지에 건설됐습니다. 혹시 '남의 죽음이 권력의 복(福)을 위한 주술적 재료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허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이 '상상 그 이상의 악행도 가능한 인물들'이라는 비판적 관점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특정 정치인이 국가 권력을 사적인 보복이나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상적인' 정치인의 범주를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왕이나 된 듯 보존가치가 가장 큰 여좌에 앉아 큰 충격을 준 사건에 가려있지만, 대통령실에 역술인 행정관을 두고 내란 임박해 5대 명산에서 대규모 굿판이 벌어졌다는 제보 내용도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 씨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초자연적 힘에 의존하는 '정치적 무속'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만약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자신들의 운명과 복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의 죽음을 무속적 장치로 이용하고자 했다면, 이는 단순한 비리나 실수 차원을 넘어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영적 영역까지 동원한 '희대의 스캔들'로 변질 일입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열왕기상 18:25~39 갈렐 산의 엘리야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미디어공간대어 느헤미야 4:1~6 거룩한 분노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위로하여라
본문	욥기 21장
설교	빈말로 하는 위로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5장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서다
화	출애굽기 6장 모세와 아론에게 내린 주님의 명령
수	사무엘상 8장 하나님이라는 왕
목	마태복음 5: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금	마태복음 5:13~20 소금과 빛의 삶을 살려면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 마을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한쪽은 영적 지도자라 불리고 다른 쪽은 기르는 어 린양으로 비유되는 위계 속에서 교회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곤 합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걸 강조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2차 피해까지 초래됩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벙커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 교회소식



지난주 수요일(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현장 수요예배를 참사 현장 부근 녹사평역 1번 출구에서 오프라인 20명, 온라인 400여명의 교우가 모여 예배했습니다. 사진 당일 국화꽃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김우정 집사의 모습.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일 청년주일** 11월 13일은

전대일 열사 산화기일로 교회는 전주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일 설교는 평화나무 기자이며 최근 안수를 받은 신비롬 목사가 말합니다.

**양미혜 장로 합격 보고** 지난주

10월 28일 예담교회에서 열린 가을 정기대회에서 고시부는 양미혜 집사의 장로고시 합격을 보고했고, 30일엔 신암교회에서 장로임직예정자 결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실황은 누룩 TV에 올라왔습니다. 양 장로 임직식은 이달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합니다.



**박지호 대표 대통령실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를 이끈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이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10월 십일조 보고 옥바라지선교센터에 1,379,900원을 보냅니다.

카라반 곧 입고 교회학교를 위한 카라반이 금주중(예정) 교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이 공간의 이름을 '찾았다'라는 의미의 유레카로 정했습니다.

📞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교회

11월 교회 십일조 인권연대	11월 안내 2여교우회	지난주 헌금액 4,002,000원
--------------------	-----------------	-----------------------